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 모의 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지

대학	학부·학과	수험 번호	성명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답안지의 첫째 줄부터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6.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7.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8.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9.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에만 작성하십시오.
10.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11.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상기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 (서명)



CHUNG-ANG UNIVERSITY

## [경영경제 계열]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손자가 요새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요전에는 마루에서 뛰다가 의자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 울상을 하고 나에게 와서는 얼굴을 들이대면서 “약, 약.” 한다. 무릎이 까졌을 때 약을 발라 준 생각이 나나 보다. 나는 부딪힌 자리를 쓱쓱 비벼만 주고 약은 안 발라도 되겠다고 일러 주었다. 그러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물러가지 않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데 이번엔 ‘약’ 소리 대신 입을 오므리고 “호오, 호오.” 하는 것이었다.

다치거나 물것에서 물린 자리에 약을 발라 줄 때마다 “호오, 호오.”하면서 상처에 입김을 불어 줬었는데 그것이라도 해 달라는 것 같았다. 나는 웃으며 녀석의 얼굴을 끌어당겨 이마에 정성껏 “호오.”를 해주었다. 녀석은 눈까지 스프르 감으면서 그렇게 마음 놓이고 느긋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었다. 나도 웃음이 절로 났다. 나의 어릴 적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꽤 클 때까지도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입김에 의지했던 것 같다.

“호오, 호오.” 어린 마음에 할머니나 어머니의 입김이 와 닿기는 비단 다쳐서 아파할 때만이 아니었다. 화롯불에 파묻어 말랑말랑 익힌 감자나 밤을 꺼내 꺾질을 벗겨 주시면서도 “호오, 호오.” 입김을 불어 알맞게 식혀 주셨고, 끓는 국이나 찌개도 그렇게 식혀 주셨다. 먹고 싶은 걸 참느라 침을 꼴깍 삼키며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 어린 마음속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텃었다.

어찌 상처나 뜨거운 먹을 것에만 그분들의 입김이 서렸을까? 그분들의 입김은 온 집안에 서렸었다. 입김이란 곧 살아 있는 표시인 숨결이고 사랑이 아닐까?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심심해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입김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닐는지.

(나) 운이 열한 살이 되던 해였다.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엘 갔다가 시들해서 돌아온 운을 보고 허 노인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세상에는 줄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흔찮을 게 당연하지.

그러고는 운에게 줄타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땅바닥에 직선을 그어 놓고 그 선에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왕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꼬박 5년의 세월이 걸렸다. 운은 열여섯 살이 되었다. 그때 이미 그는 언뜻 보기에 허 노인과 닮없이 줄을 탔다.

그러나 허 노인은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 위로 오르게 하려는 눈치가 안 보였다. 하지만 운은 그 허 노인에게 선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운은 허 노인을 무서워했다. 허 노인은 운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나면 언제나 뒷마당에서 회초리를 들고 운의 줄타기 연습만을 계속했다.

참다못한 운이 어느 날 아버지 허 노인에게 속마음을 텃다.

—아버지 저도 이제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

그때 허 노인은 얼굴색이 조금 변했으나 온화하게 물었다.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게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허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되겠다!

운은 까닭을 몰랐으나 더 대꾸하지 못했다. 열여덟 살이 되었다. 운은 허 노인에게 다시 같은 청을 드렸다.

—어떠냐, 줄이 넓어 보이느냐?

—줄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은 불안했으나 사실대로 말했다.

—그래, 줄을 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나?

—예.

—귀도 들리지 않고.

—예.

그것도 사실대로 말했다.

—흠, 아직도 객기가 있어…….

1년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전 생애를 운에게 떠넘겨 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다) 대길: 저 앞의 논이랑 밭은 싹 갈아엎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밤이면 밤마다 불을 켜 승용차들이 줄나배비를 서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와, 차 엔진 소리! 우와, 돈 굴러 들어오는 소리……

김덕보: 그만들 하지 못혀! 내가 내 집 짓고 살겠는데 왜 네들이 이래라저래라 난리여?

대봉: 아버지! 대길이가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얘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대길이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 언제 사람 구실 할 거냐고!

대길: 아버지 재산 정리해서 자기 잇속 차리는 사람은 제구실하는 겁니까?

며느리: 도련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대길: 형수도 그러는 게 아니지. 형님 뒤에서 부추기는 거 모를 줄 아십니까?

김덕보, 한쪽에서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망치를 들고 집을 부수려 한다.  
자식들 깜짝 놀라 말린다.

대길: 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며느리: 아버님, 그만두세요!

김덕보: (집을 부수려 하며) 네들 눈에는 집이 집으로 안 보이는 모양이다. 왜 사람이 살것다고 짓는 집을 돈으로 보난 말여. 집구석 말아먹는 집 따윈 지어서 뭐해?

곳거리장단이 잔잔하게 깔리는 가운데, 사람들 상량식 준비를 한다.

김덕보: 그동안 고생들 많았네. 이제 벽치고 마루 까는 일만 남았으니 이번 공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긴 거.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다 알지?

최 씨: 그람유, 대들보 올리는 상량식 날 아뉴.

김덕보: (자식들을 보며) 네들은?

대봉: 상량식 날이고…….

김덕보: 그리구?

대길: (머뭇거리다가) 그야……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발표하기로 하신 날이죠.

김덕보: 그게 다냐? (입을 다문다.)

이씨: 성님! 뭐 그리 뜸을 들이슈? 답답허게.

김덕보: 사람들 다 모아 놓고 집안일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오늘이 저 애들 에미…… 기일일세.

김덕보는 아무 말 없이 보자기에 싸 온 것을 푼다. 문패를 꺼내 소중하게 한 번 쓰다듬고 집에 건다.

며느리: 박점례? 박점례가 누구야? 이름도 참…….

대봉: 조용히 해, 어머니 성함이셔.

김덕보: (문패를 어루만지며) 이 사람 살아 있었으면 올해가 환갑이여. 서른에 세상을 등졌으니, 꼭 살았던 만큼 죽은 시절을 보냈구만. (회환에 잠겨) 참 모질게도 추운 날이었지. 당장 집세를 못 내면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기에 여기 저기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돈을 구하러 다니다 집에 가 보니, 돌을 막 넘긴 대길이 놈을 꼭 끌어안고 대문 앞에서 쭈그려 앉아 있더라구. 일으켜 세우려고 해두 퐁퐁 얼어붙은 몸뻐이가 펴지지 않아. 그날 밤 그 사람 몸을 녹이느라 밤새 주무르고 문지르면서 내 약속을 했지. “집부터 사자, 못 입어서 그지 소리 듣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두 집부터 사자.” 그런데 그날부터 영 운신을 못하더니 그대로 저세상으로 가 버리더구만……. 대봉 엄마! 이제 환갑 되는 해, 당신 제사상에 집 한 채 올리네. 혼령이라두 편히 살어.

대봉: 아버지……죄송합니다.

대길: 아버지…….

김덕보: 집이 대관절 뭐가. 비바람 피하고, 세상사에 시달린 육신 편히 쉬라는 곳 아닌가 말여. 언제부터 집이 돈으로 둔갑을 해서 사람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이 집은 이 나무가 다 썩어 무너져 내려서 흙으로 다시 없어질 때까지 네들 에미 집이다.

(라)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 지대를 여행하던 주인공은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한다. 그는 한 양치기 노인을 만나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는다. 이 양치기의 이름은 엘지아 부피에. 그날 밤 주인공은 엘지아가 도토리를 세는 것을 보게 된다. 양치기 노인은 100개를 세었을 때 셈을 멈춘다. 엘지아는 나무가 부족하여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토리를 골라내 황폐한 고원에 홀로 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제1차 세계 대전 후 주인공이 황무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처음 파종한 나무는 10년생의 키 큰 나무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나무가 자라 만들어진 작은 숲과 물이 흐르게 된 시내, 그리고 나무를 갹아먹는 양 대신 벌을 키우고 있는 엘지아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뒤 해마다 노인을 찾아가는 주인공은 풍요로운 숲과 풍부한 수자원 속에서 평화로운 마을이 된 고원 지대의 변화를 보며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과 마주치게 된다.

(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사회 풍조도 많이 바뀌었다. 경로 우대 사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세대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노인당’ 후보가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지방의회는 과반수를 장악했다. 설령 노인당 후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없으면 당선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젊은 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反)노인’을 구호로 내건 ‘새벽 청년당’이 등장했다. 이들은 90세 이상 노인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30대 이하 젊은층의 비례 대표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바) 고령 사회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단, 준비하는 사회에 축복이 있다. ‘노인이 오래 일하면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편견이 있다. 절대 아니다. 1980년대 유럽은 청년 실업 극복을 위해 장년층의 조기 퇴직을 방관했다. 노인이 떠나면 청년이 채울 줄 알았다. 결과는 반대였다. 노인의 경험은 청년의 혈기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일자리만 줄어 경기 침체를 낳았다. 노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청년의 일자리도 줄었다. 유럽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요즘 유럽에서는 ‘입사 시 나이를 묻지 마.’ 운동, ‘정년퇴직을 퇴장시키자.’ 운동이 한창이다. 유럽연합은 2000년,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 산업 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2010년 33조 원인 고령화 산업 규모가 2020년에는 1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시장 규모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 산업이고, 그중 개인연금, 퇴직 연금 분야가 유망하다고 보았다. 또한, 건강 기능 식품 산업과 방문 요양 서비스, 건강 검진 서비스, 질병 상담 및 관리 서비스 등 요양 산업이 유망하다고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의약품 분야와 의료용 기기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사)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했던가. 어떤 활동을 이르는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젊음과 체력이 필요한 활동이 아닐까? 그렇다면 몸은 비록 허약하지만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노년의 활동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퀸투스 막시무스와 내 아들의 장인이자 자네 부친으로, 탁월한 인물이었던 루키우스 파울루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파브리키우스와 쿠리우스와 코룬카니우스 같은 다

른 노인들도 조언과 권위로 나라를 수호했는데,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러므로 노년에는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셈이네. 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은 더러는 뚝대에 오르고 더러는 배안의 통로를 돌아다니고 또 더러는 용골에 낀 더러운 물을 퍼내는데, 키잡이는 고물에 가만히 앉아 키를 잡고 있다고 해서 항해하는 데 그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같네. 젊은 선원들이 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키잡이가 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네. 큰일은 체력이나 민첩성이나 신체의 기민성이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대개 줄어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간다네. 나는 병사로서, 연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사령관으로서 온갖 전쟁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니 자네들에게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지. 하지만 지금도 나는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원로원에 조언해 주고 있다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노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젊은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주장을 제시문 (라)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해 보고, 노인의 고용을 확대하자라는 제시문 (바)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식을 제시문 (사)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어떤 나라의 현재 청년 실업률(15-29세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25%, 노인 실업률(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40%라고 한다. 이 나라의 어느 도시에서 임의로 청년 192명, 노인 600명을 선택하여 실업 현황을 조사하려고 한다. 이 도시에서는 조사 대상자 중 청년 실업자가 51명 이상일 때 청년을 위한 실업 정책 A가 시행되고, 조사 대상자 중 노인 실업자가  $y$ 명 이상일 때 노인을 위한 실업 정책 B가 시행된다. 그러나 도시의 재정적인 문제로 정책 B가 시행될 확률이 정책 A가 시행될 확률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다음 그래프를 이용하여 노인을 위한 정책 B가 시행될 수 있는  $y$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단, 다음 그래프는 표준정규분포  $N(0,1)$ 을 따르는 확률변수  $Z$ 가 어느 특정 값( $z$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즉  $P(Z \leq z)$ 을 나타낸다.)

